부실 저축은행 '뇌관' 터지나

경기침체 여파…전북 현대저축銀 6개월 영업정지

광주·전남지역 일부 부실여신 급증 위기감 고조

전북 부안의 현대상호저축은행이 지역경기 침체 등으로 인한 경영부실로 6개월간 영업정지 조치를 받으면서 지방 저축은행 업계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광주·전남지역 저축은행들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지만 일부 저축은행의 부실여신 규모는 커지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4일 현대저축은행을 부실 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6개월간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다.

금융위는 이번 영업정지의 가장 큰 원인을 지방 경기침체로 인한 중소기업 대출부실로 보고 있다. 건설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전북지역 부동산 관련 기업대출이 부실화되면서 은행의 경영압박이 커진 것이다.

현대저축은행은 BIS비율이 지난해 말 4.22%에서 최근 -40.41%까지 추락했으며, 고정이하여신비율(이하 부실여신비율)도 연일 급등세를 보였다.

광주·전남의 경우 지난해 홍익상호저축은행과 대운저축은행의 영업정지를 전후로 BIS비율 등 주요 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이 크게 개선됐지만 일부 저축은행의 부실여신도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광주·전남 7개 저축은행(예아름저축은행 제외)의 평균 BIS비율은 12.72%로 집계됐다. 이는 2006년(12.33%)에 비해 0.39%포인트 개선된 것으로, 전국 110여개 저축은행 평균(9.67%)을 크게 웃돌고 있다.

특히 동양저축은행과 센트럴저축은행, 대한저축은행 등 3곳은 우량 저축은행의 기준이 되는 '8·8클럽(BIS비율 8% 이상, 부실여신비율 8% 이하)'에 속할 만큼 자산건전성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동양저축은행은 지난해 BIS비율과 부실여신비율이 각각 16.93%, 6.42%에 달하고 있다. 센트럴저축은행도 BIS비율과 부실여신비율이 각각 25.59%, 6.12%로, 대한저축은행 등과 함께 자산건전성 개선이 두드러졌다.

반면 광주·전남지역 일부 저축은행의 부실여신이 지난해 크게 늘어나면서 경기침체로 인한 부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지역 저축은행의 평균 부실여신비율은 9.24%로, 1년 전(6.72%)에 비해 2.52%포인트나 악화됐다. 이는 일부 저축은행의 부실여신이 1년새 두 배 가량 급증할 만큼 지역 내 부실대출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광주·전남은 7개 저축은행 가운데 5곳의 BIS비율이 8%를 크게 웃돌고 있어 부실화 가능성은 크지 않다"면서 "다만 경기침체로 인한 부실여신 증가는 저축은행 업계에 적잖은 부담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aT(농수산물유통공사·사장 윤장배) 임직원 30명은 지난 20~22일 농산물이 산지에서 소비자에게 이르는 과정을 직접 체험하는 '팜투테이블(Farm to Table)' 행사를 가졌다. 임직원들이 해남에서 월동배추를 수확, 트럭에 싣고 있다. 〈aT 제공〉

월동배추, 산지서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농수산물유통공사 '팜투테이블' 현장체험

aT(농수산물유통공사·사장 윤장배)는 지난 20~22일 임원과 1급 이상 간부 30명을 대상으로 해남에서 '팜투테이블(Farm to Table)'이란 제목으로 현장학습을 실시했다.

'팜투테이블'은 산지에서 월동배추를 수확, 도매시장과 소매상을 거쳐 최종소비자 손에 들어가기까지 현물과 함께 이동하면서 직접 체험하는 과정을 말한다.

이들은 지난 20일 서울에서 해남으로 내려가 이튿날 배추를 수확한 뒤 일부 직원은 배추 운송트럭에 탑승하고 나머지 직원은 나주에 소재한 김치수출업체 삼진지에프에서 전국 지사장회의를 가졌다.

지사장회의는 주요 물가관리 품목인 배추의 수급 및 가격상황 점검 순으로 진행됐다. 회의를 마치고 서울로 이동한 이들은 오후 10시 가락동도매시장에 도착, 산지에서 트럭으로 이동한 팀과 합류했다.

곧이어 시작된 배추 경매과정을 참관한 후 새벽까지 농식품 유통효율화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현장학습은 41시간의 강행군을 거쳐 22일 오전 11시께 종료됐다.

aT 윤장배 사장은 "해남산 월동배추 1포기의 산지가격은 608원에 불과하나, 서울 소비자가격은 2천170원으로 3.5배에 달했다"면서 "농식품 유통 효율화를 위해서는 농림수산식품부 정책과제인 1시군 1유통회사를 성공모델로 만들어 농가소득 제고와 소비자 가격안정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전남도, 소상공인 창업자금 100억 지원

올해부터 도소매·제조·운송업 등 대상

전남도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창업 증진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 소상공인 창업자금을 올해부터 신규사업으로 지원한다.

전남도는 올해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아이템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교육·컨설팅·자금 및 보증 등 일괄지원을 통해 소규모 창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100억원 규모의 창업자금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지원 대상은 창업 6개월 이내의 소기업 및 소상공인과 전남도에서 주관하는 창업교육과 컨설팅을 받아 창업하는 업체로 매분기 25억원씩 100억원을 지원한다.

도소매업과 서비스업종은 5인 미만, 제조업·운송업·광업 분야는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를 대상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무도장·오락업 등 사치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윤인휴 전남도 경제정책과장은 "소상공인지원센터와 전남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창업컨설팅과 신용보증을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어 도내 소상공인 창업이 한층 쉬워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문의 전남신용보증재단(061-729-0632), 전남소상공인지원센터(061-741-4153)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보해 매화사진 촬영대회 성료

전국 사진 애호가 등 1만여명 몰려

보해양조(대표이사 임건우)가 주최하는 '제7회 보해 매화사진 촬영대회'가 지난 22일 해남 보해 매실농원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사진〉

'매화, 사람 그리고 사랑'을 주제로 열린 이날 대회에는 전국 각지에서 2천여명의 사진애호가와 8천여명의 상춘객 등 1만여명이 몰렸다.

이날 참가자들은 오는 27일까지 보해 매화사진 촬영대회 홈페이지(www.bohaephoto.co.kr)를 통해 자신들의 작품을 제출하면 된다.

대상 1명에게는 상금 200만원과 함께 상장과 상품이 주어진다. 문의(062)370-6270~4.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서비스 연구개발사업 참여 희망 업체 모집

중소기업청은 '서비스 연구개발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제조업의 제품 · 공정개발에 대응하는 서비스업의 마케팅, 조직혁신 등 새로운 서비스 상품과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는 것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사업과제당 연구개발비의 75% 내에서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연합뉴스

"中企 에너지 비용 대책 없다"

10곳중 8곳 비용 상승 부담 느껴

중소제조업 540곳 조사

중소기업의 상당수가 에너지비용 상승으로 부담을 느끼고 있지만 소등과 같은 소극적 대책을 제외하면 마땅한 대응책이 없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24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중소제조업 540개사를 대상으로 '최근 원유 등 에너지비용 상승이 기업수익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라고 설문한 결과 43.0%가 '매우 많이'(13.9%) 혹은 '상당히 영향이 있다'(29.1%)고 응답했다. '어느 정도 영향이 있다'(41.1%)는 답변까지 감안하면 중소기업 10곳 중 8곳 이상이 에너지비용 상승으로 인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대개 '소등, 격등 등 소극적인 대응'(41.5%)을 하고 있으며, 심지어 '특별한 대책이 없다'(33.1%)고 답하기도 했다. 반면 '비효율적인 에너지시설 교체 등 적극적인 대응'(19.5%)을 하거나 '에너지경영시스템을 도입'(1.3%)한 기업은 많지 않았다. /연합뉴스

하도급대금 지급 불이행

보강종합건설 검찰 고발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24일 수억원대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지급에 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주)보강종합건설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광주공정거래사무소에 따르면 이 업체는 하도급 계약을 맺은 G건설이 2006년 2월 광주시 남구 효사랑마을의 토목공사를 끝낸 지 2개월이 지나도록 공사대금 1억7천600만원과 지연이자(연리 25%)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업체는 또 지난해 7월 이같은 사실이 적발돼 시정명령과 2차례의 독촉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검찰에 고발조치됐다. /최경호기자 choice@

▶ 신 등 급 : 100만원 ▶ 입금계좌 : 광주은행 011-107-034480
▶ 예금주 : 대원주건설 ▶ 분양대금의 40~50% 금융대출, 안전한 수익계약

도청 및 75개 공공기관 광주 남악신도시로 대이동
전남도청 앞 오피스텔·상가 분양!
실투자금 2,000만원대 오피스텔!
■ 680㎡ - 23,000㎡ 대주시대의 남악 신도시 중심부에 위치
■ 전남도청 등 75개 공공기관 남악 신도시로 이전
■ 관공서 및 법무,주거시설이 밀집한 핵심지역으로 임대수요 풍부
■ 전남도청 정문앞과 이주하고 있는 최고의 요지
■ 미한주상수 입주와 대불산업단지의 활성화로 인한 외부인구 대거 유입
■ 주차대수 370대에 넉넉한 주차공간(법정 106대)
■ 바로 앞 버스정류장이 있어서 교통편리
■ 바로앞에 대형 하나로마트 입점으로 인구유입 극대화
■ 신축의 장점과 편리한 생활공간

도청프라자 분양문의 061) 246-1700